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5월 10일 (제 1357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내가 잠언을 쓰는 이유

나는 잠언(箴言)을 쓰고 있다. 누구는 초석 언(楚石言)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빨간판이라고 부른다. 이 잠언은 설교 때나 혹은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때론 주의 종들이나 신학생을 교육할 때 사용하고, 어떤 때는 전 성도에게 오늘의 메시지로 보내기도 한다. 지금까지 쓴 잠언이 아마도 4천 개에 육박할 것이다.

왜 잠언을 쓰냐고 묻는다. 나는 그럴 때 솔로몬이 쓴 잠언 1장 말씀을 들려준다. 같은 이유에서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잠1:2~6).

목회 41년 동안의 경험, 70년 넘게 살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를 통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울무에 잡히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바라서다. ‘너희는 꽃길만 걸어라.’, ‘너희는 건강해라.’, ‘너희는 잘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게 거짓 없는 내 심정이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쓴 잠언을 실천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탈출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을 찾고, 믿음을 되찾았다고 할 때면 나는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 사실 명언을 남기는 사람보다 그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 ‘목사님이 빨간판 또 쓰셨구나.’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을 삶에 적용해보라. 반드시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질이 상승하게 되고, 건강과 행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리라.

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잠언을 쓴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끊어낼 수 있지만, 아버지와 자식은 끊을 수 없는 핏줄 아닌가. 그래서 기도원에서 안 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설교했던 것이다.

자식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 제발 잠언을 실천해다오!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동색(同色)이다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빛이나 녹색이 같은 색이란 뜻으로, 이름은 달라도 성질이나 내용이 비슷하다, 같은 부류,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어울리기 마련이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열등감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란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 춘계산상집회를 통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동색이며, 사고의 원인이 여기서 나온다’고 목사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춘계산상집회 영상을 같이 보았지만, 목사님은 최근 한 달 사이에 고집, 분노 등, 인간관계에서 벗어지는 사고들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하셨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마이크

천정부지로 솟으니 쓴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시골 사람들이 졸지에 상상도 못할 만큼 큰돈을 갖게 되었고, ‘졸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쥐어진 돈으로 드러낸 심리가 딱 천박한 우월감이었습니다. 사실 열등감 속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나 명예가 주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천박한 우월감입니다. 일종의 보상심리인 셈이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라면 그 형편과 처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까’하며 나를 살피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남 앞에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심리를 뒤집어보면 결국 열등감의 다른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충실하셨지요. 물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본 바탕에 있으시기 때문이겠지만, 눈앞의 일들에 초연할 수 있는 자세는 진짜 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역사해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당당하게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자세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신원하셨고, 그들이 결국 목사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머리를 숙이게 되었지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해외 목회자들이 가는 곳마다 목사님을 따르며 배우려고 하고, 각국의 지도급 인사들이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2026 춘계산상집회(4월 27일~30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삼아 거듭 강조하며 경고하시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만일 우리가 여전히 이런 약점에 노출되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월감,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심리, 열등감, 남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피해의식, 이거 둘 다 말만 달랐지 동색, 곧 같은 말입니다.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쓸데없이 남에게 우월의식도, 열등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주위에서 추어주면, 겁을 상실하고 남을 멸시 천대하며 교만해집니다. 예전에 논밭이던 강남이 갑자기 개발되어 땅값이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느냐’는 분노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전에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나, 지난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에 갔을 때의 일을 되돌아보면, 우리 상식은 이렇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강사로 초빙한 목사님을, 우리 같으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대접할 텐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들이 어떤 대접을 하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괴심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에 있지 않을까요?

기사가 나갈 때면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 집회가 진행되고 있을 테고, 6월에는 멕시코(Mexico) 비야에르모사(Villahermosa) 집회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그 넓은 복음의 지경을 계속 맡기시는 이유도 온유한 마음과 충성된 자세에 있다고 믿습니다. 쉽게 분내고 성내는 것은 결국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목사님을 본받아 매사 여유와 실력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은택 목사



필리핀 세부 집회

5월 6일(수)~ 12일(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6:32)

나를 다스리면 못 이룰 것이 없다

투계(鬪鷄)를 몹시 좋아하는 어느 왕이 당시 최고의 투계 사육사에게 최고의 투계를 키워내라고 명했습니다. 일을 맡긴지 열흘이 지나자 왕이 사육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한 하나 교만하여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열흘이 지나 왕이 물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벼슬을 세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고 왕이 묻자 사육사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목계가 되었습니다.”

‘목계(木鷄)’란 나무로 만든 닭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의 능력을 일컫을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 그룹의 총수로 지목되면서 부친에게 ‘목계가 되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말이기도 합니다. 싸움닭 중에 가장 으뜸은 상대 싸움닭이 달려들면 벼슬과 털을 다 세우고 대항하는 닭이 아니라 웬만한 닭이 달려들어도 나무로 만든 닭처럼 무반응하는 닭이듯, 잔바람이나 풍랑에 출렁이는 쪽배가 되지 말고 폭풍 속에서도 끄떡없는 항공모함같이 큰 자가 되라는 것을 교육받은 것입니다. 그 교육을 받은 그는 지금 기업을 잘 이끌어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영은 관리다 내 마음을 관리하라

그렇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적이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강자인 것입니다. 자승자강(自勝者強)이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뜻으로, 남을 이기기보다 자기 내면의 욕망, 분노, 한계를 다스리는 데서 강함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분노는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노는 꼭 다투거나 사고를 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잠29:22).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 그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된 원인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가인은 농

사를 지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분이 가득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창4:4-8). 그 결과는요? 당연히 저주지요(창4:11-12).

사울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칭송하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 할안

이 되 어 허구 한 날 다윗을 쫓습니다. 그 결과요?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함께 비명횡사하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습니다(삼상 31:1-6).

분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욘34:15),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열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열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찌라 칼이 다시 꽃혀지지 아니하리라”(겔21:4-5).

여러분, 분노는 활화산과 같습니다. 가끔 마스크를 통해 활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용암이 지면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분노가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분노가 활화산 같다 말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잠 27:4). 태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나면 어

찌 되던가요?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공들여 쌓아놓은 것들, 노력해서 얻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일순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집도, 농토도, 자동차도, 때론 가족조차도... 분노가 그런 겁니다.

공든 탑도 계속 공들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잠16:32). 평생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화를 더디 내면 그 사이에 분노가 가라앉아 마음이 제어됩니다. 흔들린 플라봉을 바로 따면 옷에 튀고,

바닥에 흘러 남는 게 없지만, 탄 산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더디 따면 튀는 것 없이 하나도 남비되지

않는 것 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잠12:16).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베드로가 적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 예수님의 본성은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는 방법은 성령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 그 영이 내 안에 오시어 그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가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갈 5:22-23).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바꿀 수 있지만, 본성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성을 바꾸는 방법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사람이 되면 험기 방지하던 내가 죽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

분노가 공든 탑을 무너트린다

험기가 왕성했던 사울이(행9:1) 성령이 임하자 전혀 새 사람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매한 핍박과 환난과 모함에도 참고 이겨냈고, 더는 기뻐하였으며,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했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름다운 사랑 장(章)으로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분노하여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마26:53-54)도 성령을 받은 후 변화하여,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벧전3:15-16)고 권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던 성격이 성령을 받은 후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되니 사람이 풀립니다. 온유한 자가 되니 만사가 잘 풀립니다. 복이 따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시37:11).

여러분,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약1:19-20).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싶거든, 즉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거든 분을 내지 마세요. 혹 분을 냈다면 해가지기 전에 풀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요(엡4:26-27). 혹 분을 내는 자가 있거든 그와는 동행도 하지 말고(잠22:24),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빌4:4). 자고로 자갈이 없는 옥토에서 곡식이 잘 자라고, 잔잔한 순풍에 뚫날배도 잘 가고, 따뜻한 양지에 꽃이 먼저 피는 법이니까요.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 아름다운 인생 ::

1등을 하려면 우선 완주하라

다음은 워런 버핏이 2010년 버크셔 헤서웨이 주주서한 중 '인생과 부채(life and debt)'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서 버핏은 유동성의 중요성과 레버리지의 위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의 가장 기본 원칙은, 1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완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우리 버크셔 헤서웨이가 하는 모든 활동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빌린 돈을 이용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가난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레버리지(부채의 활용)가 효과를 내면 여러분의 이익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효과로 이득을 보면, 다시 보수적인 관행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어떤 수든 양수는 그 숫자가 아무리 커도 0을 하나만 곱해도 0이 되고 맙니다. 역사는 레버리지가, 심지어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 사용한 때조차, 매우 수시로 모든 것을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사업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따금 해당기업의 고유 문제나 세계적인 신용경색 때문에 만기에 부채를 반드시 상환해야 할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는 오로지 현금만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린 차입자들은, 신용

은 산소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신용과 산소는 풍부할 때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알게 됩니다. 신용이 잠깐만 부족해도 기업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금은 기회에 대한 일종의 콜 옵션입니다. 풍부한 현금은 기회가 발생했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귀중한 선택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요. 반대로, 매수자가 소수인 시장에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 큰 헤어컷(haircut, 한 자산의 가치와 시장가격 간의 차이: 할인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 없는 주식, 사치품, 미술품과 같이 소수만 이해하는 자산 시장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돈을 써야 하는데 쓸 돈이 없다면, 바로 이것이 리스크입니다. 필수적인 소비에 지출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가에 자산을 파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최악이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많은 교훈들은 힘든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데 그런 교훈 중 하나는 강제장에서 탐욕의 유혹이고, 그 다음이 레버리지의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2017년 주주서한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약1:14).

이미경 권사

:: 빛과 소금 ::

영적인 근육을 키우자

나이가 들수록 근육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 몸은 30대 이후로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걸 넘어서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며 건강한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런데 육의 건강만큼 영적인 건강도 잘 돌보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시간들을 뒤로 미루기가 쉽다. 육의 건강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혼의 상태는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점검하고 돌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5년 후, 10년 후에 분명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주의 종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말이다.

이런 선한 영적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서 시험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져 주저앉지 않고 거뜨히 일어나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루, 이를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바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게으름이 반복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둔해지고 정작 믿음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운동을 하루 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듯, 영적인 근육 또한 꾸준한 훈련을 통해 자라난다.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때마다 열리는 집회의 자리를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자.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루하루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쌓아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우리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송지혜 집사**

송지혜 집사

미명의 기도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만에 또 안수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 이번에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장례를 부탁하셨고, 입관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새벽 미명은 3~5시로 사람이 무척 깊이 잠든 시간이다. 경험상 불신자 가족과의 장례는 더욱 영적 긴장을 해야 하기에 이른 미명에 부르짖고 나니 유난히 깊은 고요함을 느꼈다. 그래서였을까. 꽤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어두운 장막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컴컴한 미명에 혼자 기도하셨던 거군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괴로움과 두려움을 안고 기도하셨네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구하셨기에 능력과 위로를 받으셨군요. 예수님, 부끄럽지만 이제서야 제가 그 마음을 조금 깨닫습니다.”

이후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듣는 가족들의 입에서 작지만 분명한 ‘아멘’의 화답을 듣게 하시어 나를 위로하셨다. 돌이켜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을 이루셨다. 내 근심 걱정을 쉬게 하시며, 어두워진 영혼을 밝혀 주셨던 시간이었고, 주의 종으로서 소명을 주실 때와 생도로서의 훈련을 견딜 수 있던 비결,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계시들도 언제나 새벽에 시작되었다. 그 체험들은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다.

새벽의 기도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자리 또한 새벽이다. 그 미명의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고 분이 되어 주셨으며 여전히 나를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시 46:5). **김혜리 교육전도사**

김혜리 교육전도사



:: 소망의 언덕 ::

참된 스승

최근 신학생들과 함께 나누었던 ‘호도스(Hodo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치셨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락한 강의실에서 말로만 제자도를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가르침이란 곧 ‘함께 걷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지식 아닌 본(本)으로 제자도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호도스’의 정신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40여 년의 성역(聖役)을 마치고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누리셔도 될 법한데, 목사님은 마치 어제 안수를 받은 젊은 전도자처럼 여전히 세계를 누비며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저 없이 그분을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희는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하시며 앞장서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득 학창 시절, 한 선생님이 떠오르니

다. 독보적인 열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교사가 된 후 전해 들은 그분의 소식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학생의 길을 접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분은, 자신을 그리워하며 찾아온 제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가르침을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가르침대로 끝까지 좁은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충분히 걸었으니 이제 너희가 가라.’ 하지 않으시고, 남은 여생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영적 스승의 존재가 더욱 귀하고 눈물겹게 다가옵니다.

이번 스승의 날에는 우리 결의 스승님들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보다 앞서 험한 길을 닦아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은 뒷모습을 보여주는 ‘길 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외롭지 않게 걷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현승 목사**

이현승 목사

:: 간증 ::

:: 빛이 되리라 ::

다시 성가대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자녀 포함하여 4명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2005년, 서울로 발령받아 2009년 봄까지 살면서 저희 부부는 4부 성가대에서 찬양하며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 신분이라 지방으로 발령되어 17년 동안 지방교회에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를 떠나면서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날, 저는 많은 눈물 흘리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다짐했고, 그 열망은 한 번도 식지 않았습니다. 광주예수중심교회에서 우리 가족 4명이 성가대에서 찬양하였고, 부산으로 발령되어 부산예수중심교회에서도 가족 모두가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해운대예수중심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없어서 하지 못할 때는 늘 가슴 한 곳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늘 기도한 것은 반드시 다시 서울 임마누엘

성가대로 돌아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기도 응답은 오지 않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환갑을 지나고 '하늘에 많은 상을 쌓아야 하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받는 상을 같이 받아야 하는데'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오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도 했었는데, 16년이 되는 해,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은 너무나 기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기쁨의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온 가족이 서울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순간을 늘 꿈꾸며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 부부가 장모님을 25년 모시고 살았고, 저의 어머니도 잘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

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늘 새기며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복에 복을 주셨습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에 다시 서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라' 하신 올해 슬로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잠언 말씀, 우리 생활로 직결되는 좋은 말씀을 직접 뵈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건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동참하고 멋지게 봉헌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내가 서 있는 서울예수중심교회를 기름지게 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진주예수중심교회, 광주예수중심교회, 부산예수중심교회, 해운대예수중심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총회장 목사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김종길 장로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신앙의 휘방꾼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노량진 교육관에서 저녁 8시 기도 모임이 처음 생겼을 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30분간 하는 기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노량진이라는 위치가 집과 반대 방향이라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 집까지는 지하철로 두 정거장이면 가는데, 노량진 교육관은 지하철로 두 정거장, 버스로 갈아타서 일곱 정거장을 더 가야 했거든요. 또 교육관에서 집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 시간이 피곤하게 다가왔어요. '그냥 저녁에 집에서 기도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안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작년 4월, 간절히 기도할 문제가 생기자 저절로 노량진 교육관을 찾게 되더군요. 매일 저녁 성도님들과 모여 기도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66일이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각인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요, 1년이나 저녁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눈물 콧물 속 빼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퇴근하고 곧장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놀고 싶어요. 밤공기 마시며 느긋하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싶어요. 지금껏 저는 신앙생활 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단호히 제사를 끊어낸 엄마 덕분에 제사 문제로 부대끼 일 없이 평생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회식도 많고 술을 권하는 분위기였으나 저의 상사들은 "은혜는 크리스천이라 술 안 마셔."라며 먼저 막아주었죠. 주말 출근이 불쑥 불쑥 생기는 광고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 때문에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전엔 야근이 잦았지만, 이제는 연차와 능력이 쌓여 근무 시간에만 집중해서 일해도 때론 좋은 성과를 냅니다. 야근을 안 하니 평일 저녁 기도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7:13~14). 좁은 문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전혀 좁은 문이 아닌데, 아주 평탄하고 평안한데, 꺾박하는 사람도

없고 방해하는 환경도 아닌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하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나의 좁은 문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구나. 곧장 집에 가서 눕고 싶어 하는 나를,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놀고 싶어 하는 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나를, 그런 나를 이겨내고 기도하러,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는 길이 좁은 길이구나.

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동시에 휘방꾼이 되기도 합니다.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얼마 못 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질책받았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다가도 뒤돌아서 사탄의 생각을 품곤 합니다.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나약한 저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점심 먹고 잠시 산책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이초석 목사님의 20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휘방꾼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은혜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통치하시며, 그 사랑의 마음을 당신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도 심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란 마음은 너무나 힘이 강력해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기도 하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드리기도 할 만큼 인간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역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그 첫 번째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중에서도 맨 앞에 사랑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고, 변화되었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다는 방증으로 생각해보도 좋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너무나 버겁고 어렵습니다. 더욱이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나 아픔이 남았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 이 사랑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안 돼도 하루하루 더 성장하며 사랑의 마음과 그릇을 키워가야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얻었다면 그다음 내 평생에 이뤄가야 할 가장 크고 복된 일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사랑이 있습니다.

장명훈 집사

대구 전도 집회

*일시: 2026. 5. 15(금), 오후 2시
*장소: 엑스코 서관 5층 컨벤션홀
*문의: 02. 533. 9191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